

러서 짐으로 대려 갈 만 하지만 일부터 홍일을 업혀 업게 하고 먹으라 다 가 도로 배앗  
은 양재물을 다시 먹어 자기의 처음 먹은 목적을 달하자는 주의이다. 홍일은 순회  
가 바깥은 마음을 먹고 인력거군을 부르라는 줄은 모르고 업혀 있는 양재물을 치  
여 버릴 생각도 못하고 인력거군 부르라 갈 마음이 급하여 그냥 인력거군을 부르라  
사직동 박우물압 인력거장으로 갔다 이때 참전은 아모 소리없이 업혀서서 홍  
일과 순회의 수작함을 보고

아! 불상한 일이다 여복고통이 되여야 양재물을 먹고 귀중한 생명을 버리고  
자하였슬가 만주에 있는 저의 으른이 이런 광경을 보면 밋칠 듯이 날뛰며 피눈  
물을 얼마나 흘리일가

하고 동정의 눈물을 흘려 자 홍일은 인력거군을 부르라 갈 후에 순회의 압력으로  
갓가이다 거서며

리 순회씨

하고 불났다 순회는 눈을 감고 누웠스나 홍일이 가 인력거군 불으라 간 눈치를  
채이고 양재물을 다시 집어 먹으라고 몸을 운동하는 찰나에 자기의 일홈을 음성  
껏 두른 사람이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순회는 눈을 떠서 보았스나 생면부지의 양  
복한 청년이다

아! 홍일을 업게 하였더니 저 사람이 또 나의 압길을 저회하는구나

하고는 급히 고개를 들고 업혀 노인 양재물을 보고 손을 뻗어 놀이여 양재물을 집  
으라 드렸다 창선은 급히 다라드러 양재물을 말로 미리 멀리 치우며

여보 순회씨 아모리고 흥이 되기로서니 만주에 계신 부모를 생각하기로서니  
이런 최후의 일을 하라든단 말이요

순회는 만주에 계신 부모란 말을 듣고 눈을 번쩍쳐 보았다 그러나 누구인지 알 수  
가 없다 순회는 압흔 입을 여지 못하며

당신이 누구신데 만주에 계신 부모말삼을 하세요

네 나는 만주서 온 김창선씨요 아시겠소

순회는 이 말을 듣고야 새 정신이 번쩍나서 몸을 괴동하여 이러안지며

아! 당신이 만주서 오신 김창선씨세요

하고는 창선을 바라보려니

아이구 창선씨! 여기를 잊지오시겠지요 내가 망인가요 죽어서 혼이 만주를  
가서 뵈옵나요

아니요 정신차리시요 나는 순회씨의 아버지님 부탁을 듣고 순회씨를 뵈오라

고 오늘날 경성을 도착하여 순회씨를 최홍일의 집으로 차지라 갔다가 뵈옵지  
못하고 이리 차저 왔소  
에그그려세요 저의 부모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댁내도 안녕하십니까요? 저

는 쌍속 같습니다

네 순희씨 부모께서도 안령하시고 저의집도 무고들하십니다

에그 감사합니다 저의집은 창선씨의댁에서 두호하신 덕택이겠지요

..... 저로말하면 고통이 오직심하여야 이런마음을 먹습니다

그러시기야 하지요마는 고통이삼할지라도 참으셨다가 그렇고 그리운만주에게신부모를 생각하시여야 하지요 만약에 순희씨가 도라가시고보면 만주에게신 부모님의 정경이 엇더하시겠습니까

저도 불효인줄야 모름닛가만..... 사정이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러

사정이엇더하셔서 그런사상까지 가지시엇는지는 모르되 고는택지본이라고 고생땃에 행복도오겠지요

원겅요 지금저의 형편이갈수록 험산이지 탄평한길을 말바볼수가업세요

하고 한숨을 휘내여쉬는데 홍일은 인력거군을 다리고왔다 창선과 순희는 하든이악이를 뚫쳐버리엇다 홍일은 순희가 이러안저 창선이와 수작할을보고 순희야 아모대도 관개치아나한나

네 관개치안어요

대관절 먹지는아니하엇지

네 아니먹엇세요 먹엇스면 이러케성하게 말을하겇습니다 입안만 혀여저서

안과요

그게무슨저시냐 사람이엇지하면 그러케 독한마음을 먹느냐 그런데대관절

이양반을아는나 네가주야만주 / 하더니 만주서 오시엇다는구나

알고말고요 한동리에서 자라나고 지금은저의 아버지과갓치 만주에게신데요

그러냐 사람이고생을 하다가도 이러케반가운 소식을듯고 김분일도생기는

데 죽으라는단말이나 어서 인력거를라라 집으로가자

아직집으로는 갈수가업세요

엇지해서 병원에가서 입안을소독을하고 치료를하여야 하겇습니다 입안이작구 분나

보아요

그러면 그리해라

하고 당주동에잇는 병원으로입원을 하게하엇다 순희는 입원을하자 창선은

근처러판에 주인을 정하엇다 그리고 이날밤에는 희순의 사정을알고자 하여

병원으로 순희를 차져갓다 홍일은 순희가 음독자살하랴는것을 박천만에게

홍지를하여 천만이라도 이소식을듯고 대경하여 병원으로차져왔다 그리하여 천

만이와 창선이는 병원에서 갓치맛나게되엇다 천만이는 순희를보고 조금도

가엽서하는마음이업시

이에 갇차는나

네 관계업습니다 알마나 놀나셋습닛가 이년의 매혹한것을 용서하세요  
이애 용서코무엇이고 그만한게 다행이다 그러나 잊지하면 그런악독한마음  
을먹는나 어데내가마음을 노코지내갇는나 네사정도 사정이라니와 남의리  
해도보아주어야하지

미련한마음에 아버지리해는 생각지못하고 고롱만 앓을서서 그리하였습니  
다 용서하시고 마음노코지내세요 또그럴리가잇습닛가 인제는만주게신아  
버님소식을 드렸스닛가 다시는 그런마음을 아니먹습니다

하고 창선을 가라치며

이냥반이 김창선씨이신데 영성서 저와갓치 자라나고 지금은만주에가세서  
저의 아버님과갓치 계신데저를 일부러 차지라오시옵세요

하고 인사소개를한다 천만은 순희의말을듯고

아! 그러한야

하고 창선을 도라보며

처음뵈옵쇼 인사합시다 나는 박천만이라하는데 나와 순희와는 무슨관계가  
잇는지 알겠구료

네 알엇습닛가

그런대 만주배신 순희의 부모는 안령하시요

네 안령하시지요

● 그런대 그동안에 돈이나 좀 모는 모양일리가  
모기를엿더케 몰수가잇습닛가 백사지쌍에서요

그렇치만 자식과라가지고 갈때에는 돈모자고 만것이아니요  
그렇치만 어대 돈모으기가 용이할닛가 잇는사람도 업새기가쉬운대요

그야 만주뿐이갇소 어대던지 흥망이라는것이 잇스닛가... 그런대 순희  
아버지의 심바람으로왔다니 순희를 다려가게 마련이되엿소 저애가 하도독  
하게마음을가지고 잇스닛가 일사도마음이 아니노이요 저애가 조금만더 그  
런악착한 마음을가지면 나는 손해가불소하겠구료

창선은 이말을듯고 속으로

아모리 인육장사를 하는놈이기로 잊지하면 그러케도 인정이업는말을할가  
지중한인명은 하여간에 제손해가지중하라는말이지

하고 천만을 좇치못한 눈으로바라보며

당신의 손해도 지중하지만 생명을얻으라는 순희의 사정이더욱 가엽지안습  
닛가

그야그렇치만... 나도 낭패가아니요 몇백원드려서 사람일코 돈일으면

..... 하여간에 몇해만에 차저왔을적에는 무슨싸당은 잇겟구료  
네! 싸당이야잇지요

아! 시원하오 다려가서요 저애도조코나도조코..... 그러치아니하오  
그러시면 순회의 대한돈이 모다얼마나되기에 그리심닛가

오백오십원중에서 이백원은 순회가 맞긴것이 잇스닛가 삼백오십원만대면  
아주 남이될것이요

그러면 제가 돈을드리지요

하고 순회를보며

그러케되면 제음이 들을것이업소

그러시다닛가요

하고 어름 / 하며 확실이 대답을못하였다 박천만은 순회를보며

왜 그러케 대답을하느냐 분명이 대답을하여야지

글세요 제야 자제허알수가잇습닛가 아버지이 그러타하시닛가 그런가하는  
것이지요

그애가그래도 그러케말을하네 내가 이백원갓다줄때에 제음을 처서보지아  
니하였느냐

글세요 그러케 말삼을하시엇지요

하고 창선을보며

제 아버지께서 돈을드려서 가지고오시엇세요

● 돈은무슨돈이던지 순회씨 빚만갓고나면 고만아니요

하고 즉석에서 돈을대내여노으며

이돈을 가져가시면 중서등은 주셔야지요

암! 이를말삼이요 내 중서등을 가지고오리다

하고 천만이는 중서를가질아 집으로간사이에 홍일리와 반월이가왔다 반월이  
는 순회를 물그림이보며

언니! 엇더하세요

판게치안타

그게무슨지시요 언니갓흔 사람이 이제상에 하나뿐이겟소 인제는그런마음

을먹지마세요

여복하야 그런마음을 먹겠느냐 그러나인제는 나는 아주탈신이되였다

탈신이되시다니요

내몸갑을갓혔다 그러닛가 나는아주 광명한런지로 나간세음이다

반월은 이말을듯코 제나 속신을한듯이 조아하며

에그언니! 고마워라 엇더케 속신을하시엿소 만주서 손님이오시엿더니 언

니 아버지께서 돈을 보내셨소  
홍일도 이소리를 듣고

응! 네가 박천만이와 남이 되었서

네

고마운일이다 그러케 조흔일이 생길것을 죽으라드렸단말이나 앓차하드면  
그런조흔일을 못보고 앓가운생명만 업셀뻔하였구나 그래 만주서 네아버님  
께서 돈을 보내셨든나 참 고마운일이다

하고 순회를본다 순회는입속이압퐁것도이저버리고 김분우숨을방긋이우스면서

하고 창선을 바라보았다 홍일도 창선을바라보며

참! 고마운일이요 순회는 아주극락세계로나간세음이요 그러기에 부모뻘  
게업서? 순회에게들은즉 만주서도 생활에매우 곤란하게지낸다고하는데  
엇더케불소한돈을 변통하여보냈단말이요

하고 반월을보며

너도 너의부모가 만주게시다니 순회의 아버지와갓치 돈이나보내여 속신이  
나 하엿스면조갯다

반월은 이말을듣고 눈물을 흘리며

저는부모의 생사존망도모르고 잇는데요? 무슨복으로 순회언니갓치 되기  
를바랄닛가

한다 창선은 이말을듣고 반월을보며

부모가 만주에게시기는 개신데 생사존망을 모르고잇다는말이요

네

엇더케되어서 그러케서로 실산이되고 몸은엇지하야 화류계에 팔이엿단말  
이요

제가 열살적에 간도국자가에서 사라췌는데 별안간밤중에 마적이동리를 습  
격하고간후에 아버지와의 어머니는 란리중에 도라가시엿는지 저혼자만 남아  
집에서 올라가 이웃집사는 김소사라는로파가 저를불상타하고 구호를하여  
주며 이곳은 마적으로하야 살기가위험하니 경성으로가서 살자고하기에 싸  
라왔더니 저를오십원에 파라먹고는 도로잔도로잔는지 서울에그저잇는지알  
수가업세요

하고 제신세 한탄을하며 홀々누기여운다 그의정경을 누가보던지 목석이라도  
동정을 아니할수업다 순회도 창선이도 동정의눈물을 흘리엿다 창선은 수건  
으로 흘으는 눈물을써스며

여보반월이! 그러면 김소사라는자는 어디사는지 모르겟다는말이요

네 모르지요

그러면 반월이게 대하야는 부모가 사라게 신지는 모르겠지만 현시형편으로  
는 이제상에는 반월을 위하야 동정할 사람이 없고 반월의 간음뿐이로구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고독하야 구원하여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목이 메여 말을 이르지 못하고 하수같은 눈물을 흘린다 창선은 가만히 무슨  
생각을 하더니 속으로

아! 가련한 녀성이 다 이제상에 저와 갖치 가련한 인생이 한들이 아닐것이다  
하고는 반월을 보며

지금 반월이가 몸감을 갑흐라면 누구를 주어야 하오

하고 무뎠다 홍일은 창선을 보며

내가 샅스닛가 나를 주어야 하지요

그러해요 그러면 오십원이면 아모세음이 업시 되나요

네 그랬지요 내게은후는 즉시 집안일을 보앗스닛가 오십원의 리자는 그간

집에서 고용으로 제해버리지요

그런면 반월이와도 계약한 증서가 있나요

네 있지요

그러시면 당신도 그 증서를 가져오시요 돈은 내가 드릴터이니

그러시요

하고 홍일은 저의 집으로 가더니 천만이와 압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일제히 게  
약서류등을 가지고 왔다 창선은 순희의 몸감과 아월의 몸감을 여수히 치려 주었  
다 이와 갖치 몸감을 다 갑고보니 순희나 반월이도 천만이나 홍일과는 아모  
관계가 업시 되고 창선의 사람이 되고 마렸다 그리하야 순희는 입속이 완치될때  
까지 병원에 있스려니와 반월은 홍일의 집을 갈것이 업스매 불가불순회를 간호  
할겸 병원에 갖치 있게 되었다 창선은 러관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하야 창선은 순  
희를 보며

자! 순희씨는 인제 자유의 몸이 되었스니 안심하시고 치료를 마드시련니와  
반월이는 장차 어의로 갈주의요

반월은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지며

저는 아시는바와 갖치 무일죽한 몸인데 어의로 감닛가 인제는 최홍일과는 남  
이 된 이상에 갈것 업구요? 엇지 할는지요 갈곳도 업스니 당분간에는 언니가  
병원에 잇슬 동안에 갖치 잇다가 되원하는 날에 언니가 어대로 가시던지 갖치 갈  
가 합니다

하며 자기의 고독한 신세를 생각하고 비탄의 눈물을 흘린다 창선은 반월의 가련  
한 정경을 보는 동시에 동정의 눈물을 안니 흘릴수 없다 창선은 눈물고인 눈으로

반월을 이육기바라보며 무삼생각을하다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찰스며  
반월의 정경은 과연 가엽손일이요 당장에 갈데가 업스니 할수잇소 그러면 아직  
순희씨와갓치 병원에잇다가 순희씨가 퇴원하거던 그때에 순희씨와갓치 잇  
째케하던지 할수잇게업지요  
하고 또순희씨를보며

순희씨는 입속이완치된후는 엇지하랴오

글세을시다 창선씨는 엇지하시는지요 저는창선씨의 지도만마들수잇게잇습  
닛가 만주로가신다하면 저도만주로가갓습니다

그야물론이갓지요 만주에부모가게시닛가 그리가실것은 정한일이지요 그런  
데 나는만주로 갈생각이 지금가해서는 업습니다

그러면 경성에세셔요  
아니지요

그러면 어디를 가실작정이심닛가

나는만주로가면 즉부모가게진곳이지마는 모든것이 심리에맞지를아니하여  
동경으로 유학을멏해잔 하고십습니다

순희는 이말을듯고 회색이만면하여지며

창선씨생각이 그러세요 저도 오날이라도 만주로가서 부모를뵙읍고십흔마

음은 불일듯합니다마는 부모가 안령하신것을 아릿스니 그만하면 안심이되  
는데 아니가서되오면 엇더할나구요 일후서스자로 상달하여 제가오날이러  
케 창선씨의 구하심을 입은것을 아시게하고저는 이모양으로 만주를가는  
것보다 창선씨를따라가서 너자에게 상당한공부나하고자하오니 미안하오나  
이몸을 동경까지만 가게하실수가잇습닛가 이몸이동경가서는 고향이라도하  
고 창선씨에게정정을 아니세치갓습니다 그런즉 창선씨의의향이 엇더하신지  
순희씨의 사상이그러하세요 그러시면 순희씨의 원하시는바를 쫓차드리지  
요 내가 재산은 그리너지못합니다마는 순희씨의원을 쫓차드일만은합니다  
하고 또반월을보며

반월의 사상은엇더하오

저야더구나 말삼하여 무엇하심닛가 저는 창선씨의 사람이라 창선씨지휘하  
시는대로하겠습니다

허허그것은 무슨소라요 오날반월의 몸값은값하져 자유의 몸이되엿거니와  
그것으로내가 반월에게대하야 조금이라도 야비한사상을가졌다면 그는인면  
수심이져 어디사람의 심정이라고 할수가잇소 그런즉 나는반월의대하야 조  
금이라도 구속할권리가업소 만약에내가 반월을구속한다면 최홍일에갓잇습  
파 일반이아니요 그런즉 조금도그런마음은생각지말고 자유로하오 아니할

말로내가 반월을어느 화류계에 이익을남기고 몇백원에 넘긴다하면 반월은  
아모이의업시 매말대로하겠소  
할수업는일이지요 인제는 제가 창선씨에 매인품이라 무삼이의가잇겟슴  
가 수화라도 불페할터인데요  
아니요 그러케마음을 죽이지말고 자유활동을하오  
저는자유활동을할 능력이업습니다 저는 순희언니의 지도를바다서 할터이에요  
하고 회순을본다 순희는우스며  
반월이도 고독하닛가 그런생각도하겠지마는 지금내가 내몸을 주체를못하  
는형편이니와갓지아니하냐

언니는 그리하세도 저와대갓소 언니는 부모께서 생존하신것을 알고계시거  
니와나는 부모가 어찌계신지도 모르는 가련한신세가아니요 그런즉나는  
언니를 천형님으로 알고잇스니 천형님은나를 천동생으로 아라주시기를바  
라오

하고는 또 올기를 마지아니한다 순희도올며  
이에우지마라 네나내나 이제상에 나올때에 팔자안길 엇지하느냐 네가나를  
정그리한다면 나는너를 팔시하겠는나 나도형제가업는 고독한일신이라너  
를 천동생으로알터이니 너도나를 천형으로 아라라 그런면너도 나와갓치

풍경가서 공부를하고심푸나

네나도그리고심히요 그런데 돈이문대이지요 언니와갓치고학을할지라도  
위선갈러비가 잇서야 아니함닛가

하고 창선을본다 창선은 양인의 수작함을듯고

자! 두분의사상이 그러하면 러비라던지 학비등은 내힘도라가는대로보조  
를 할터이니 그리아오

순희와 반월은 이말을듯고 회색이만면하며 이구동성으로

에그고마와라 이온해를엇지다 갑습닛가 결초보은을하여도 만분지일을 못  
갑겟습니다

천만에 은혜라니 별말을다하는구료 은혜고 무엇이고 모든일이 시종이여일  
하여야할터인데 우리인생이란 조석으로 화복이거림자따르듯하닛가 나종  
을알수가잇소 그런말은 하지말고 나는나의 힘도라가는대로 원조를할터이  
니 이와화류계에서 지내던 씬은사상을 내여버리고 새사상을가져 조선너자  
에게 모범적인물이되오

하고 안유도식치고 권면도식키었다 이후순희는 일주일이지난후에 입을완치  
하였다 그리하여 창선은 예정과갓치 순희와 반월을다리고 동경으로 건너가  
서 순희와 반월은 이와에 가곡을배운관계로 동경음악학교에 입학하고 창선

은 제국대학편파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때의 정열은 창선  
아가 정성을 나온 후에 창선은 자괴에 방향념이 말할수 없지 코마우나 창선의  
부친원일은 넘우나 무정이한것이 야속하였스나 그래도 원일이가 진정으로  
그와 갖치야 속하게 하는지 한번다시 보고 이 약이 들 하여 보겠다 하고 원일을 차  
쳐 보았다 원일은 정열이가 천만에 또 차저음을 보고  
정열인가 어서오게  
하고 단연스럽게 혼연이 인사를 하였다 정열은 원일의 인사하는 어조가 전일  
과 다름을 보고 속으로  
올타 이 사람이 마음을 돌이켰나 보다  
하고 정열도 혼연한기색으로  
원일이 묘사이 평안한가  
어 나 는 잘 있네 그런데 일전일은 야속키 생각말래  
별말을 다 하네 그려 내가 야속키 생각할리가 있나 사실이 지 돈 채라 하는 데로  
은 사람의 요구를 다 수용할수 있나  
을은 말일제 그는 자네가 아는 말일제 아모리 갖가운 친구라도 진정이지 소청  
을 다 수용할수는 업는 일세 자네만 하여도 그 만큼 양해를 하여 주나 고마운  
일세 세 그런데 나는 큰일났네

정열은 거짓돌나는 기색을 지으며

왜! 무슨 일인가

내 자식놈이 어디를 갔는지 삼사일이 되여도 아니드러오네 그려  
정열이야 정성잔 줄을 알지마는 스치미를 뚝 떼이고

어디를 가서 아니드러올가

글세 말일제 이곳이 위험지대이라 마음이 아나노이네 그려

간너마을 정군삼의 아달은 지금 마적에게 붙들여가서잇는대 일천원을 가져  
와야 노아보내마고하나 돈이업서 아달을 다려오지 못하고 잇지아니한가 그  
리해서 애도이러케 아니드러오닛가 별생각이다나네 그려 어디가서잇는지

좀 아라나 보앗스면 조켓네

아니 할말로 마적에게 잡피여 갔스면 등지가 잇슬것일제 소식을 업슬적에는  
다른대 가서 잇는 것이지

아니야 창선이가 단하로를 나가서 잔적이 업섯네 그려닛가 궁금하지.....  
자네는 마적과 좀 결연이잇스니 아려보아 주게 그려

정열은 별안간에 얼굴을 붉히며

이사람아 그게 무슨 소린가 큰일날 소리를 하네 그려 내가 마적과 결연이잇다니  
그것도 말이라고 하나 면역에 군정청에서 듯고보면 나는 귀신모르게 죽으라

고 그런 소리를 하나  
여보게 우리 두리만 잇는대 엇더한가 누가 잇서 드러야 위험한 말이지? 사실  
자네가 마영찬이와 친하지 아니한가  
그것만 하여도 자네가 위험한 소리가 아닌가 마영찬이를 마적으로 지목을하  
니 마적인 증거가 있나 마영찬이만 하여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마가장에서  
는 유력한 사람이 아닌가

그야 그것치만 그 재산이 다 어디서 생긴 재산으로 아나 자네는 그 사람의 원조  
를 바드닛가 두둔을 하여 말을 하지 마는.....

하고는 고만 후회하는 생각이 나서

고만 두개 내가 실언을 하였나 보이

하고 말을 뚫쳐 버렸다 경렬은 속으로

내가 너를 보고 심퍼온 것이 아니다 또 말한 마디를 하여 내 소청을 듣고 아니 듯  
는 것을 보아 나의 분푸리를 하겠다

하고 잠깐 말을 뚫치며 원일을 바라 보더니

여보게 원일이 내가 자네를 또 차저 오기는 다름 아니라 일전에 말한 것을 다시  
청하랴와네

원일은 말 눈치를 알지만 거짓 모르는 체 하고

무슨 청인가

이 저 버리었나 내가 이곳에서 무지하고 살야면 말한 것을 좀 주어야 하겠네

무엇을 달나는 말인가

정말 모르겠나

정말 생각이 아니나네

앗게 엇지하면 그러케 말을 하나 돈 말일세

원일은 그제야 깨달은 듯이

응! 돈 말인가 내가 무엇이 라고 하였나 못될 줄로 말한 것을 또 말하면 되겠나

..... 그런데 짐의놈이 어디 갔는지 그것이나 좀 아타 주게 그러면 자네 소

청도 드러 줄 터이니! 자네게 청일세

흥! 자네도 내게 청이다 잇나 그러치마는 내가 알 수가 있나 자네가 나서 차

저 보게 그러

여보게 답답한 소리도 하네 내가 차질 수가 잇스면 차질 것이 아닌가 내가 나서

차질 수가 업서 자네 더러 부탁이 아닌가

경렬은 이 말을 듣고 창선이가 경성 잔말이며 자기의 딸 순희가 가서 잇는 곳까지  
알고 간 것을 아르게 주고 심호나 속으로

만일 이런 것을 일러 주면 나에게는 리로 읍지 못하다

하고 가장 모르는 체하고 생색을 무척 낸다  
글쎄나 서서 종적을 차지라면 위험한 곳도 드러가보아야 아니하나 그러니 어  
렵다는 말일세

그러기에 자네게 부탁이지 달내서 부탁인가

그러면 나는 엇찌한 위험을 무릅쓰던지 자네의 부탁을 저버리지 아니 할터이  
니 자네는 내청을 꼭 드러주어야 하네

그는 조금도 녀며말게 이 무서운 만리이역에 와서 우리는 우리 동포가 서로 애  
호를하여 주어야 하네

암! 다시 이를 말인가 아 못조록 힘을 써서 주게 나 중에는 그 보수를 상당이 줄  
것이니

보수여부가 있나 내일이 즉 자네일이요 자네일이 즉 내일이 지

이와갓치 경렬은 생색의 말을 하엿다 원일은 경렬의 말을 듯고 마음에 저괴안심  
을하며

나와 달나서 자네가 아라 보라면 쉬우리

그는 엇지 하야 그러한가

자네는 나보다 말이 널고 또는 어디를 가던지 새릴 것이 없네 그려 그러치 아니  
한가

그러나 나는 무산자인 판계로 무서운 것이 없다 하는 말이지

아닐세 그려 깨할 말인가 자네는 수단이 있다는 말이지 다른 말인가

하고 경렬의 호감을 사기위하야 오심원을 주며

자! 이것이 적지만 이것으로 비용을 써가며 아라 보게

경렬은 마지못하는 체하고 바드며

주기를 하닛가 바기는 하네마는 돈만 허비하고 성사를 못하면 무색하지 아니

한가

별조리를 다 하네 자네 정성것만 하여 주게 나는 돈을 앓기지 아니 할터일세

그리하게 내마음것은 하여 볼터이니 비용은 앓기지 말게

하고 경렬은 돈을 가지고 짐으로 도라왔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원일을 차저가

보고

나는 지금 차저나서는 길이니 그리알게

미안하야 고생이 되도록 힘을 써보게

녀며말게 그런데 이곳에서 차저보아서 못차지면 경성까지라도 가라고 하니

그리알고려비나 녀며이주게

원일은 우스며

그리하라는 말에 엇지 하랴나 경성으로 가면 자네 살도 보고 고향도 가려 하야 조

옛날

경성까지 가서 되겠나 이곳에서 차저야 하지

하고 가장 차지라 다년체하고 이삼일을 심방차 아니하였다가 원일을 차저보았  
다 원일은 엇진일인지 환영하는괴색이엿서  
경별인가 몇칠을 두고 아니오나 원일인가 하였네 그려  
한다 경별은 원일의 괴색을 가만히 보며

내가 자네께 오기만 하면 무엇하나 자네의 부탁을 드렸스니 발분만식을 하고  
다녀야 종적을 알지 아니하나 몇칠 동안 하여도 자네께 오겠지 만 만약에 마적  
등에게 잡히여 갖는지 알수가 있나 자네는 마영찬이를 무엇이라고 하디마는  
만약에 마적에게 잡혀갔스면 알기쉬울듯 하여서 마가장에게서 이놈저놈술을  
먹여가며 아라보아도 도모지알수가 업시 돈만히 하엿네  
원일은 눈을 실죽이 뜨고

무엇이야 돈만히 하엿서..... 그려닛가 자네는 일을 하라 아니 다니고 돈하  
비하라 다니엿네 그려? 그만두게 인제는 아달놈의 엿는 곳을 아랏스닛가 공  
연이 귀중한 돈을 허비하고 다닐것업네 내가 준 오십원이나 내여노케  
형별은 이 말을 듣고 하도어이가 업서 그대 원일은 보며 무서워  
고마운일사세 아달소식을 드렸다니 엿더케드렸나

어적게 동경있다고 편지가와서 아렸네  
아! 그런가 그런것을 공연이애를 썼네 그려! 그런데 오십원을 도로내여노  
으라니 쓰지는 아니하고가지고 다니기만하나 창선의 종적을 알야고 사오일  
을 두고 위험한 곳에 드러가 이놈저놈을 쫓차가며 술도먹이며 약도적었스니  
그것은 돈을 가지자 아니하고 무엇을가지고하나 생각을 하여보게  
흥! 자네는 일은 일다이 성사는 못하고 남의 돈만 허비를 하엿네 그려.....  
참 나는 여울한걸.....

내가 돈을 써도 자네일로 썼지 내일로 썼나  
그야 그것치마는 돈을 쓴형적이 잇서야 아니하나  
형적이 무슨 형적이야 내가 술과 아편을 사서 먹이며 알아보아달나고한 부탁  
한놈을 다리고올터이니 무려보려나

무엇이야 그것을 무려보아..... 나는그런놈이 무서와 보기도 시르니나는모  
르네 자네가 쓰고아니 쓴것을 내가아나 두말할것업서 그돈은 나를 도로주어  
야하네 만약에 줄수업스면 자네가 썼다고 채용중서를 하여노케 그것치아니  
하면 아니되네

경별은 이 말을 듣고 하어이가 업서  
무엇이야 채용중서를 하여노와라 자네일로 자네가 비용준것을 왜나더러

채용증서를 하여노라고하나 자내가 이곳에와서 이따위지스스로 돈을모았나 하고 고만극도로 흥분이 이러나 두주먹을볼근 쥐고

이놈아 내가 이곳에와서 이따위행세를 하다가는 네명에못죽는다

하고 원일의 가슴을 힘껏질냈다 원일은 뒤로잡바지며  
에구々 이놈보아 남의돈을 무뎀매여먹듯하고 아니감겠다하며 도로혀사람을쳐니 이것이 적반하장이로구나 이놈아 따려라 내가 이러케하면 뒤가 무사할줄아는나

하고 벌떡이러나 머리맞헤노인 칼을잡아든다 경렬은 박그로 뻗뛰어나가며 오나 네가 칼을잡아들면 누구를죽일터이나 어디보자 네가 얼마나 돈을가지고 자제를하나 무산자라고 녀우나 경렬이알지마려라

하고는 원일의짐을나와버렸다 원일은 경렬이가 이와갓치 략족한행동을하고 간후에 분하기가 한이업스나 잊지할일이업다 속으로분을참으며

흥! 이놈이 내게 이따위짓을해! 업는놈이 마음이나 순항하게가져야지 제가 이리하고 이곳에서 부지를할가 어디두고보자  
하고 혼자베르기를 마지아니하고있다 그리고 아달창선에게 급히오라는 편지도하고 창선이가온후에는 경렬에게대한 분부리도하고 피노은돈을 거두어가 지고 다른데로 이전코자하야 채우자를 모다 조사를하느라고 골물중인데 하

로는 밤일시쯤되어 뒤마을에서 개짖는소리가 요란이들이며 부인을흔다가사 략으로황급히뛰어나오며 설이는음성으로

령감 큰일났소 무엇을그러케 드러다보고잇소  
한다 원일은 모든장부를 한쪽으로미려노으며 여씨를나며

왜! 그리급히나오 무슨일이났소

하고 부인을쳐다보았다 윤하자는 또 별々설나

저소리를 드러보시우 뒤마을에서 개가저러케지스니 원일이요  
원일은 부인의말을듯고 그제야귀를 기우고듯더니 벌떡이려서며

참! 무슨개가저러케 변으로지절가

하고 마당으로 내려가드니 방으로호호함을하여 뛰여드러오며 하자를보고 이것큰일났구료

하고 장부를거두어치우고 철괘를잠을쇠로 채우며  
마적놈들이 드러오나보오 어대로도망을합시다

가면어대로가요 마적은벌서 잡뒤갓가이 왔나보는데

이런말보았나 그리닛가 피신을하자는 말이지요

하고 부인을독촉하야 대문밖을나서 허방지방 말노이는대로 다라난다 이때 보가량을가서는 압해서 별악갓치 한놈이 압길을막으며

쉬야!

한다 조선말로는 누구야 하는 소리이다 그리고 칼을 번적 드는데 칼빛은 석광에 반사하여 번쩍하고 눈물부시게 한다 원일은 혼비백산하야 땅에 주저앉지며

에그머니 사람살이우

하고 소리를 질렀다 도적놈은 모다 몇놈인지는 모르되 너 몇놈이나 원일에게들

너서 드러다보고 그중에 한놈이 조선말도

아! 바로잡았다 이 사람이 김원일이다  
하더니 불문곡직하고 포승을 지운다 그리고 또 윤하자를 마저 포승을 지우라  
고한다 원일은 이광경을보고 경겁중에도 윤하자는 노아보내도록 하라고도적  
놈을보고

여보 잡아를가도 나 잡아가지 너자는 잡아가무엇하오

하였다 도적놈중에 조선사람하나이 원일의말을듯고

죽타 원일의부인은 아니잡아갈터이니 안심하오

하고는 몇놈은 원일을압제우고 캄캄한밤 길도엮는곳으로 모라가고 몇놈은엇  
전일인지 윤하자는버리고 동리를대고 총몇방을 탕탕노코 사람들이 도망한를  
을타서 마음대로 토략질을하여가지고갔다 이때 원일은 잡히여가면서도부인  
이나 아니잡히여오나 동리에방화나 아니하였나하고 뒤를연해도라보았스나

동리에 화광도엮고 부인도아니잡히여온다 원일은 황겁중에도 마음을노코의  
아하기를마지아니한다

이놈들이 정영마적인데 엇전일로 동리에드러가 방화악랄을아니하고 급게  
그냥지내가며 나의마누라는 아니잡아갈가 알수없는일이다 하여잔에나는  
잡혀갈지라도 불행중다행한일이다 나는이놈의청구만드려주었스면 무사이  
몸을 빼여날수가잇스닛가

하고는 저괴안심을하고 도적놈이 썰고가는대로갔다 이러케마음을단々먹으  
나가삼에서는 두방망이로 망치질하듯하였다 그리고 등에서는 삼이줄々흔넛  
다 이와갓치 썰이여가는데 얼마나갓는지 태산갓흔 령을두셋이나 넘었는데  
먼! 마을에서 첫닭이

썩기! 요

하고 동련은 현하여진다 원일은아모리 사면을들너보아도 어대가어대인지알  
수가없다 원일은 도적놈중에 조선사람인듯한 자를보며

여보나를 노아주면 천원만주리니 다른놈모르게 노와주오

하고 비러보았다 그러나 이조선사람도 불쌍한모산자로 마적에투입한자이다  
원일의말을듯고 다른놈모르게 노아주면 물론마적과수에게 총살을 당할것이  
다 자괴한몸만 총살을당할뿐외라 전가죽이 마적등골에서 생활을한다 그런즉

천원아니라 만원을준다하여도 노아줄리가 없고 또는 자기단독으로 잡아가는 게가 아니요 다른중국놈도잇스니 아모리노아주고심허도 할수가업는터이다 그 리하여 조선인마적은 비록 마적당이나 조선인의 동정심은잇서 잡아가면서 도 조흔말로위안을한다

여보내가 조선인인줄알고 말을하니 엇더케 조선인으로아오

앗가당신이 말하는소리를드르면 모르겟소 대관절 나를노아주오

안이될말이지요 마적도 군률이엄숙하여서 조금이라도 령을역이면 물론 총 살을당한다오 그리하여 원일을 노아줄수가업소 그러나당신은 안심하오 돈 이만니잇스닛가 아모관계업소

하며 동족이니만큼 동정을하는체하며 말을주고받더니 밤새도록 열마나갓던 지발이부르터서 촌보를음길수가 업게되엿다 원일은 할수업시 쌍에가주저안 지며

에이구머니 말이야 여보 나는죽으면 죽엇지 더는못가겟소

하엿다 그놈들도 할수가업던지 메리지는못하고 그중에 늙은놈이 제보쌈에서 무엇인지 쓰내서 주사침갓흔데다 헌약을 푸러서노코는 침한대를 마지라한다 이침은야편침이다 원일은 어느령이라 거역하라 이마적단은 조선인이나 중국인이나 물론하고 야편침이로 단체가된자이다 마적놈들은 야편을생아편 그

대로콩알만큼씩 쓰더서입에니코 물을마신다 이와갓치하며 심분가량을 쉬더 니 또 원일더러 가자고재촉을한다 원일은 그중에 늙은놈하나를보고

여보장계! 내집가서 돈을마니줄터이니 나를내집으로 도로보내주오

하고애걸하엿다

안이될말이요 어서갑시다

하고등을탁치고 이리킨다 원일은 항거할수업슴을 깨닫고 마지못하여 억저 로이러서따라가는대 원일인지 그러케압푸던다리와 말이갑작이 압푸지가아 니하고 몸이갓흔하여져다 아! 이것은야편의괴운이다 또열마를갓던지 산모 둥이를돌쳐서드러서자 집한채가잇는대 집안에서 엇던놈이 뛰어나오며

귀우령

하고산천이 떠나가득기 찌르령 울이깨고함을천다 이것은 마적놈들의 군호 이다 원일을 잡아가든 놈들은마주

침!

하면서 군호로 대답을하고 그집을지내쳐 산언덕하나를 넘어간즉 평々한마을 이잇다 그리고 동구드러가는어구에 크게기를 다랐는데 깃발에는 구국애민 이란내가뿌려써이여 바람에풀々날이인다 이곳은 다른곳이아니요 마영 찬의마가비밀장이니 즉 장백산속이다 원일은 무삼일로 이러케잡히여가는가

리정렬은 오심원으로 원일과 싸우고 분에 견대치 못하여 미영찬에게 가서 원일이

이가 하든 말을 하였다 마영찬은 정렬의 말을 듣고

홍! 이놈보아라 제가나를 이가치비방을해! 아! 아니 되웠다 나의비말이  
이러케 폭로가 되면 내가 이곳에서 무지를 할 수가 있나 위선고말한 정렬부터  
나의비말을 알고보았스니 그냥들수가 없다

하고 뒤산속 토굴속에다가 가두고 곳휘하를식키여 원일의집을 습격하고 원  
일을 잡아간것이다 마적은 원일을 마영찬의잇는집으로 끌고드러갔다 원일은  
이놈들이 마적인줄은 아릿스나 마영찬에게 잡혀온줄은 꿈에나생각하였스라  
원일은 끌고드러가는집안으로 드러서며 마주보이는 방을보았다 방으로서 나  
히사침가량된놈이 나오는대 눈은황소눈갓고 치는월신크고 장대한것이 펄펄  
탕하게생기었다 마영찬은 원일을보고

이놈아 너와나와 하등판배가엿는대 엇지하야나를 비평하는나 나를누구인  
지 알겠느냐 나는 마영찬이다

하고 소리를 발범갓치질르며 휘하놈을보며

잇다가 무러볼일이잇스니 뒤에갓다가 가두어라

한다 휘하놈들은 마영찬의말을듣고 원일을 뒤산속으로 끌고드러가더니  
토굴속에다가 가둔다 원일은 토굴속으로 드러가며 의외에 정렬이가 토굴속

에잇슴을보았다 비록 전제로서로 다투었스나 관감기는 한량아업다 원일은  
그놀납고도 황벌중에도 반색을하며

아! 정렬인가 자네가 엇지하야 여기와서잇나 이곳이 마영찬의굴혈이라지  
하고 무렸다 정렬은 눈을흘기여보며

이데무슨사담이야 공연이 마영찬이를 마적이니 무엇이니 하여서 나까지  
고통을받게하니

하고 원랑을한다 원일은 이말을듣고 후회하기를 마지아니하며

그말은 마영찬이가 엇더케아릿단말인가 자네와나의 단들이안져서 한말을  
홍! 국자가에잇는 사람들이 마영찬의돈을 아니쓴사람이잇는줄아나 그리  
해서 마영찬의 비평이라면 손톱반한일이라도 마영찬의귀에 다드러가고  
만는것일세

자! 그리하면 이화를 엇더케 모면하나

이화를면하라면 마영찬의부인 정해주가드려야 할터인데 누가잇서 해주에게  
교섭을할수가잇나

정해주! 그러면 국자가에서 술파든 해주집인가

그렇치

십여년전에 해주집은 밤중에살하나를 내여버리고 마적에게 붓들녀갓다더

니 마영찬이와 산단말이지  
그렇치

그러면 해주집의 남편은 었지 되었나  
남편은 마영찬이가 해주집과 살기위하여 죽이엿다지  
그래본 남편을 죽인놈과 산다는 말인가

흥! 그러기에 제집이란 소용이업다는 것이 안인가

소용이잇고 업고야 우리가 상관할 것이나 누구던지 사이에 사람을 노아서 말을  
하여보게 돈은 얼마가 들던지 청구하는 대로 줄터이니

하며 원수갓치 질시하던 경렬과 원일도 위경에 빠져 이와갓치 이익을 하는  
대 도글문을 파수하고잇든 마적이 경렬을 불러낸다 경렬은 마적을 따라나섰다  
마영찬이는 경렬을 보고

자! 내가 경렬은 용서할터이니 오날 원일의 집에 가서 원일의 금전출납장부  
를 다 가져오겟소

한다 경렬은 조금도이의 업시 원일의 집으로 가서 문부와 금궐까지 전부거두어  
가지고 마영찬에게왔다 경렬이가 장부를 거두어갈때에 원일의 부인이잇섯든들  
주엇슬리가 만무하지마는 이때부인은 마적의화를 면하고 겁이나서 집에는잇  
지아니하고 바로국자가에서 십리가량밖게사는 이종의 집으로 피신할겸 원일

외간곳을 아라보라고 이종아우에게 부탁하라고 잔사이다 그러니  
짓는로과하나만잇섯다 마영찬은 경렬이가 원일의 장부를 다 가져온후에 원일  
을불렀다 원일은 경렬이가 나간후에 궁금하여하다가 부르는소리를듯고 마영  
찬에게로왔다 마영찬은 조흔나츠로마지며

김원일씨 대단놀나섯지요 안심하시요

하더니 경렬은 요리를차려온다 원일은마음에 경렬이가 말을잘하야 무사이되  
나보다하고적이 안심을하엿다 마영찬은우스며

원일씨 대단시장하엿지요 우리술이나 한잔마십시다  
하고 몇잔을 권한후에 마영찬은 흥악한우습을치며

여보 원일씨를 청하기는 다름아니라 청구할일이잇스니 드리주겟소  
무슨일이요 말삼하오

원일씨는 국자가에살것업시 원일씨는 나와갓치 지내는것이엇더하오

한다 아하이것은 무서운소리다 갓흔 마적이되자는말이다 원일은 이말을듯고  
무엇이라고 대답할지몰나 얼골이햇속하여지며 아모말을못하다가 겨우입을여  
러 대답을한다

마영찬씨가 바로돈을얼마간 말삼하시면 그것은드러도 지금 말삼하는것은  
죽으면죽엇지 못갓소

그러면 내 말대로 돈을 주겠소  
그는 얼마인지 형제 도라가는 대로 하라다  
오만 원만 주시겠소

파연이요  
파연이 지요

그러면 당신의 재산을 조사하여 봅시다

엇더케 여기서 조사를 하나요 집에 가야 할 것이 아니요 집에 가서 조사를 하여  
서 잇는 대로 가져가시오

당신의 장부는 내가 가져왔스니 조사를 하여 봅시다

하고 경렬을 보며 원일의 장부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경렬은 장부와 금계사지압  
해다 갖다 오았다 원일은 이것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으며

에그머니 언제는 이놈에게 재산을 전부 빼앗기는구나

하고 고만눈이 둥그래지며 아모 말을 못하고 마영찬을 물그림이 바라보았다 마  
영찬은 우스며

자! 이것이면 원일씨의 재산은 다 조사할 수 있겠구료 별수가 있소 인생이 한  
세상사는 동안에 마음편히 호의호식하고 지내다가 죽으면 고만이지? 원일

씨가 재산을 전수하 나에게 양도를 하여도 원일씨는 마음껏 하여 드릴터이니  
그러시오..... 자! 그리고 우리 살을 썩거 경렬과 삼인이 류관장삼인의 도

원결의를 할과 갖치 사생을 갖치 합시다 그러면 원일씨의 재산이 나 나의 재산  
아나 네 것 내 것 할 것 없시 일반이 아니겠소 엇더하오 원일씨의 생각이.....  
만일에 불가하다면 나는 최후의 수단을 쓸터이요 그러면 원일씨는 생명까지  
일코 말것이야 아니요

하고 의형제 공갈을 한다 원일은 아처지를 당하여 입장이 아니 들을 수가 없다 파  
연이다 하나 듯고 보면 재산일코 생명까지 잃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것까지  
하고 속으로

아직 이놈의 소청대로 하고 마음을 조케한후 차차 기회를 보아 창선에 게 괴별  
을 하여 이놈의 당류를 소탕하고 탈산하리라 재가 재산을 갖다가 지고 잇슬지  
라도 하로 잇홀에 전수히 수봉은 못할 것이요 전답을 팔지는 못하겠지

하고는 조금도 서슴지 아니하고 쾌히 허락하며

그리하면 밭게나가 수봉은 누가 할터이요

수봉은 리경렬이가 각채무자도 아는 바이니 전부 갖다 하시오

그는 그리하려니와 나의 가족은 엇더케 하고요  
원일씨의 가족도 다 이리 단취가 되게 하지요 우라 삼인이 위선결의나 하여 동

심의를 표시하고 원일씨가 죽의 대한일을 의논합니다 그리하여야 우리가 한담한 뜻이 될 것이 아니요

하고 죽석에 삼인이 결의를 하는 동시에 년령을 보아 원일은 첫째가 되고 마영찬이는 둘째가 되고 리경렬이는 셋째가 되었다 이와 갓결의를 하고 마영찬이는 해주집을 불러내어 수숙자의로 상우례까지 지킴이었다 해주집은 엿진일인지 열골에는 희색이 조금도 없다 원일은 상우례를 맞치고 일부러 마영찬의 마음도 조케 할 겸 해주집의 말을 드려 보라고 우습을 감작하며

계수가 나를 아라보시겠소

하고 해주집을 보았다 해주집은 텅 빈 안색으로

네 알겠습시다 국자가에서 매주영업을 제가 하였었는데 모르겠습니까 김원일씨께서 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시다

내가 물나 뵈올리가 있나요 나에게 돈까지 쓰신일이 있지 아니하오

네 그랬지요

그런데 안색의 화색이 없스니 몸이 병이 있나요

아니에요 병이 있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항상 잊치는 것이 있서요 그것 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항상 잊치세요

마영찬씨가 여기 계시지만 저는 자식년 하나로 그랬습시다 이와 남편은 죽어 마영찬씨와 이리케 동거를 합니다 이것도 다 팔자이지요 그러나 앞서난 설 자식 하나를 바리고 이리와 서사는래 사생을 물나서 항상 마음에 잊지를 못하야 자연수심이 일골에 나타나 보이다

하고 마영찬을 쳐다 보았다 마영찬은 빙그레 웃으며

별것을 다가지고 걱정을 하네 죽지 아니하였으면 사랏겠지.....사랏스면 지금나히가 이십이갓가오닛사 시집가서 자식까지 낳슬겔.....

하고 이갓치 무정하게 말을 하여 버리며

여보오날은 우리가 조흔날이니 먹을 것이나 좀 작만하오 술이나 한잔 룽스이 먹고 부하들까지도 한잔씩 먹읍시다

한다 해주집은 아모말읍시 안으로 드러가 요리를 차려 내여 보내었다 이날은 마영찬에게 대하야는 남의 재산을 전부 빼앗았스니 깃부기가 한이 업서 이최로 룽술을 마시나 원일은 그마음이 엿더하랴 것흐로는 조흔체하며 술을 마시나 마영찬이 보다도 리경렬이가 원수갓치 미움이 한이 업다 이후 원일의 재산에 수봉은 경렬이가 전담을 하얏다 이와갓치 원일이만 마가장에 있서 사는 아니 될 것을 마영찬은 각오하고 원일의 부인 윤하자까지 동중으로 다려다가 잊게 하얏스나 그리하여도 의심만은 마영찬이는 원일의 거처한집에 심복놈들을 두어

잠시를하야 자유행동을 못하게하고있다 그리고 창선에게 일절서신을 못하게 한다 그러니 아모리 창선에게 편지를하고싶으나 할수잇스랴 아! 원일은연 제나 이마글을 버서달랴 이때 창선은 동경서 공부에열심을하며 본집으로 편지를여러번 붓치여도 반환이변치이되고만다 창선은 속으로

아! 엇진일사 썩 집에 편지가이러케 반환이되나 집에는 무슨사고가 단사 이잇는 모양이로군.....

하고 순희와 반월을보며

나는 집에편지를 붓치여도 연방반환만되니 궁금하여 견딜수가잇소 그리하 야 나는불가불 집을갓다오리니 두분은 나잇는사이에 공부를잘하고 평안 이들잇소

순희와 반월은 이말을듯고 이구동성으로

창선씨께서가시면 저이들도 갓치모시고 가겟습니다 저이는궁금치 아니합 니사

내마마님 편지할걸! 궁금할것이잇소

그리해도 모시고갈터이예요

하고 반월은더구나 눈물을흘리며

창선씨! 저는부모가 간도에게선지도 모르고잇습니다 이번가시는데 갓치

갓스면 부모나 좀 차저볼사합니다 토비는 들지라도 갓치가세요

하고 애원을한다 창선은 가만이엿각을하니 순희나 반월의사정인 일반이다

그리하야 순희와 반월을다리고 현해탄을건너 정든 고향산천을젓쳐서 만주국

자가 자괴점으로왔다 집이라고 차저드러가니 집안에는 아모도업고 안잠자기

로잇는 로파하나만잇고 집안은 불안당이 처간듯이 네기등만 우둑이서잇고

쓸사하기한량업다 창선은 집안광경을보고 대경실색하고 토파더러 무릎다로

파는 처음에는 마적의밤중에 습격하야 원일이가 잡히여간후에 경렬이가또

추후에와서 사랑에잇는 금계와문서를 모다가저가고 또 얼마후에 부인을다

러갈말을하엿다 창선은발을 동사구르며

아! 이일을엇지하면 조흔가 그리니사 마적에게잡히여 가진것이로구나 경

렬이가 문부를가져갓다하니 이는 경렬이가 마영찬이와 공모한일이다

하고 순희와 반월을다리고 경렬의집으로 한다름에갓다 경렬은 벌써가죽을모

다 마가장으로 움기엿스니 잇슬리만무하다 창선은 고만과가막기여 순희를보

여보 순희! 나의집에 이공파는 순희의부친이 악감으로 이리한것이니 이

일을엇지한단말이요

저의 아버지께서 무슨악감으로 그리실까요

순희는 모르리다

하고 피차에 돈으로 언전이 된것을 말하였다 순희는 이 말을 듣고  
에그 만약에 집의 아버지가 그리하시겠스면 저는 창선씨압해서 만번죽어  
도쌔니다 이일을 엇지하면 조홀가요

이것을 정답하랴면 마가장에 드러가야 할터인데 만약에 내가 마가장에 드  
러갓다가는 나마저 그놈에게 잡힐터이니 이일을 엇지하면 죽단말이요

순희는 가만이 무삼생각을하다가

창선씨는 가실것업습니다 제가 마가장에 드러가서 염함을 하겟습니다  
순희가 엇더케하고 드러간단말이요

저놈들이 아편을 조아한즉 아편행상 맨도리를하고 가겟습니다 마가장이어

디잇는것만아랏스면 탐정하고 나오기는 녀녀업습니다

그리다가 성사는 못하고 그놈에게 욕이나보면 엇지한단말이요

죽어도 죽습니다 겁할것업습니다

하고 아편을비밀이 사서가지고나섰다 반월은 순희가 이와갓치 나섬을보고  
역시 사생을갓치하자고 따라나섰다 창선은 마음을노치못하고 조심하라고 천  
만번 부탁을하였다 순희와 반월은 마가장을 차저드러갓다 마가장동구에 드러  
서자 동구에 직기고잇던 마적놈이 한쌍에 섰갓흔 미인의외외에 드러움을보

고 하여간에 환영을하며

엇더한 녀자인데 여기를오는나

하고 문는다 순희는 방그시우스며

우리는 아편을 팔나다니오 좀 파라주시우

마적은 아편장사라는 소리를듣고 더욱환영을하며 마영찬에게로 다리고갓다  
마영찬은 한쌍의미인의 아편장사가 왔다는소리를듣고 안으로볼너 드리였다  
해주집은 방안에안져다가 조선녀자 아편장사가 드러왔다는 말을듣고

엇던불상한 녀자이기에 아편을팔나 이무서운곳에 드러왔슬까

하고 순희와 반월이가 드러오는것을내다보았다 아々 해주집이 오매불망하든  
반월이를 못아라볼리가 만무하다 해주집은 마주뛰어나오며

반월아 네가죽어 혼이오는나 사라서 사람이오는나

하며 붓들고 통곡을한다 반월도 천만의외에 모친을보고

어머나

하고 마주붓들고 통곡을한다 마영찬은 이광경을보고

아! 저애가 반월이야

하고 해주집을보며

밤낮보지못하야 슬퍼하던말을 십여년에만났스니 그와갓치 반가울것이업는

데 올기는 왜 우리 다리고 그간 거리는 이악이나 하지  
하며 반월을 유심히 보면서 속으로

네가 참자갓으면 내가 그저 두지를 아니하겠지만 계집애가 무삼 후환이 되겠  
느냐

하고 또 순희를 보며

아! 그녀가 뚝々하다 보내지 말고 첩이나 삼겠다

이갓치 음흉한 마음을 먹고 반월을 보며

네가 반월이야 그간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엇지 견디었느냐

하고 웃는다 영민한 반월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얻는하고 위선 마영찬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우를 못치고

네 그랬습시다 심여년을 어머니가 뵈옵고 싶어서 약장사로 나서 々 방々 곡々  
이다니며 어머니를 찾다가 텅두신조하여 이러케 맞나 뵈옵습시다

그러기에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서로 맞나는 것이다

하고 순희를 가라치며

이녀자는 갓치 다니는 녀자이나

네 처와 사정이 갓하야 갓치 다닙니다

너는 고생한공이 생기었다 어머니를 맞나니 좀 반갑겠느냐

하고는 박그로나간다 해주집은 마가놈이 박그로 나가는 것을 보고 반월과 순  
희를 방으로 다리고 드러가 순희의 내력을 무려 보았다 순희는 자기의 내력을

일々이 말하였다 해주집은 순희의 내력을 듣고

아! 네가 리경렬의 딸이야 지금 네 아버지는 마가와 부동하고 김원일의 재  
산을 거두노라고 분주하다 아! 세상에 별일도 만타 이일이 장차 엇지 될 것  
이나 네 아버지는 창선 아버지와 저와 갓치 결원을 하고 너는 창선에게 후

은을 입었스니 너는 엇더케 하여야 올탄 말이나

하고 반월을 보며

그러닛까 너도 창선의 후은을 입었스니 그 은혜를 갚아야 아니하느냐

하고 한숨을 쉰이 세지게 쉬며 눈물을 더 펴々 흘린다 그리고 반월을 붓들고  
목이 메여 말을 못한다 반월은 자기 부친의 소식이 궁금하여서 해주집을 물그림  
이 보며

어머니 이러케 우시기만 하실 것이 아니올시다 아버님은 어디가시고 아니  
게서요

네 아버지는 마가에게 도라가시었다 마가에게 살해를 당하시는 즉시에 죽  
고자하나 내가 죽고 보면 너도 못볼뿐이라 네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못하겠기  
에 마가에게 욕을 보면서 지금껏 사타왔다

하고 대성통곡을 하며

반월아 이원수를 엮더케 갑고 죽는나 이원수를 갑흐면 나는 지금죽어도 한  
아 업겟다

반월은 이를 갈며 사지를 부르스스 쉼 면서

아 ! 이원수를 엮지하면 갑나

하고는 두눈에서는 불구슬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반월은 이와갓치 피눈  
물을 흘니면서도 무슨생각을 하다가 우름을 뚫치고

어머니 우지마세요 제가 원수갑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는데 마영찬이는 경렬이와갓치 드러온다 순희는 반월의 모녀가 우는것을  
보며 동정의루를 하수갓치 흘니고섰다가 부천이 드러옴을 보고

아 이그 아버지

하고 부르지졌다 경렬은 천만의외에 순희를 보고

아 이그 이개누구나 순희냐 네가 여기를 엮지왔는나

하고 반가와 다라드러 붓들고 반가운눈물을 흘이며

순희야 네가 엮더케 여기를 왔는나 나는 땀인지 생시인지 모르겟다

하고 말을 이루지못한다 순희는 죽석에 자기의 자유의 몸이 된 경과사를 말하고  
심푸나 마영찬이가 엮헤잇서못하고

아버지집이 어디오닛까 저는 아버지제서 이곳에 계신줄은 모르고 사방으  
로 차지라 다니엿습니다

에그 그러니 고생을 오작하였겟는나 여기잇슬것이 아니라 집으로가자네

어머니는 너를 못보아 성병지경이다

하고 마영찬이를 보며

이애가 나의 딸 순희요

하고 순희를 보며

이으른이나와 결의하신 의중부이시다 인사엿주어라

한다 순희는 악한인줄을 알지마는 당장은 인사를 아니할수업서 마지못하여  
인사를 하였다 마영찬이는 얼굴에 희색을 띄우며

오날 우리동중에는 이만한 경사가업다 해주마누라와 경렬아우님이 오매불  
망하던딸을 일시에 만나니 경연을 아니차릴 가업다

하고 딸스우스며 해주집을보고 요리분별을 하라고 하며

형님때도 괴별하야 읍시사고하게

하고 경렬을 본다 경렬은 영찬의 말을듯고 원일을 꾀쳐하여왔다 영찬은 원일  
을 보며

형님 우리동중에는 오날 큰경사나 다름업소 인제 형님의 아달 창선이나 왔

스면 아주 우리 세집이 유감없이 단채가 되겠소  
한다 원일은 모든 것이 반가운 줄을 모르는 터이다 그러하야 평범하게 낮빛을  
가지고

매우 기분일々세 그러나 내 아달 창선이야 올수가 있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괴별을 하여야지

인제야 괴별 못하실 것 있소 전일에는 우리가 결의를 아니한 터이라 내가 형  
님의 마음을 몰나 못하니까 하였거니와 지금이야 합심이 되어 결의사지하였  
는데..... 오날이라도 편지를 하시오

하고 자유를 조금이라도 준다 원일은 속으로

올라 이놈이 무슨 마음으로 자유를 주나 인제는 이마 굴을 버서나게 되나 보다  
하날이 도으심인가

하고 은근이 겁버한다 그러나 경멸은 속으로 원일에게 편지 자유주는 것을 새  
리기를 마지 아니한다 이것은 다른 새 닭이 아니다 창선이가 오는 날이면 자기의  
야심을 채우지 못할 것은 정할새 외라 생명새 지라도 잊지 될 지를 모르는 녀이  
다 그러나 자기도 자기의 방침을 차릴에 산을 생각하고 아모랄도 업시 도모혀 편  
지하는 것을 찬성하였다 그리고 순회를 다리고 자기의 집으로 갔다 순회의 모녀의  
맛나 반가와하는 말이야 잊지 한 톨으로 괴필하랴 고만 괴록지 아니하고 반월의 모

녀의 이 약기를 말한다

해주집은 순회가 저의 부친 경멸을 쫓차 잔 후에 반월을 다리고 자의 방으로 다  
리고 드러갔다 해주집은 바글내다 보았다 영찬이도 어디를 가고 었다 그리하야  
해주집은 마음을 노코

반월아 너는 나를 어미로 알지 마라 나는 천참만륙을 하여도 죄가 남을 년이다  
하고 목이 메여 온다 반월도 싸라 울며

어머니 울지만 마시고 아버지님이 엇더케 도라가신 것을 말삼하세요  
하고 부친 죽은 일이 알기 급하여 다른 말 할 여가도 업시 무뎠다 해주집은 우름을  
뒹치며

네 아버지지는 마가에게 도라가신 것을 말아니 하였는나 나를 네 아버지께서  
생존하시면 저의 말을 아니 듣는 다 하고 살해를 하였단다 그러니 네가 사내자  
식 갖흐면 이 원수를 갚지 마는 엇더케 원수를 갚는다

어머니! 사내자식만 부모의 원수를 갓고 제집 자식은 부모 원수를 못 갓습닛가  
하고 눈물 어린 눈을 삼작 / 하고 무슨 생각을 하다가 벌떡이려서며

어머니 저는 한 가지 마음을 결단 하였습니 다

무슨 마음을 결단 하였다는 말이나

네! 원수 갓출 것을 결단 하였지요

네가 엿더케 원수를 갚는단말이나  
 갚는수가 있습니다 한가지마음을 가진답에 무슨일을 못하겠습니까 오날밤  
 으로 원수를 갓겠습니다  
 아서라 위험한일을 하지마라 그리하다가 원수도갓지 못하고 네 생명까지  
 보존치못한다

원수를 갓흐라드는데 생명을 도라볼수잇습니까 아모념녀마세요

이에 원수를 갓출때갓드래도 네가 십여년을 어미를일코 엿더케부지를하고  
 사랏다가 이러케 어미를 차저와느냐 그이약이나 위선좀하여라 궁금하다  
 지금 원수갓출마음이 급하닛가 원수를 갓흔후에 말을하지요

하고는 순희의집을 차저가서 순희를보고 한참 순희와 무슨 밀계를 의론하고  
 모친에게왔다 해주집은 반월이가 하는일이하도 수상하닛가 무려도아니보고  
 동정만보고있다 해가서해로 넘어가고 마가는 어디서술을 얻근이먹고와서 반  
 월을보고 우스며

반월아 어머니를 만나닛가 반갑지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날제가 온것을 경사라고 동리에 한턱을 하신다더  
 니 아니하삼닛가

하고 아니나오는 우슴을 방뺏우섯다 영찬도우스며

왜 아니할리가잇는나

하고 해주집을보며

술과안주를 다 작만하엿소 오날마누라의 경사를위하여 휘하놈들을 취도록  
 먹임시다

네 앓가말삼을 하시엿기에 작만을하엿소  
 그런면 되엿구료

하고 동중휘하놈을 소집하고 해주집의 딸이 십여년만에 차저와서 경사로한  
 잔식먹인다고 설명하엿다 휘하놈들은 해주집에게처하를 분수이하며 술이만  
 취가되도록 배불이들먹고 정신을 못차리고 여기저기가 쓰러진다 그리고 영  
 찬이도 술이만취가되도록먹고 코를집이 떠나가도록골며 잠을잔다 이때에 순  
 희도와서있다 밤이깊혀서 동중은 고요하다 반월은 품속으로 단도를내어들고  
 어머니 저는 원수갓출사귀가 되엿습니다

하고 해주집을보며 정신을일코와상애가 쓰러져자는 영찬에게 다라들며

아! 이놈 악마야 네가 나의아버지를 살해한 원수로구나

하더니 손에다가 전신에힘을 다주고 칼을드러가삼을 찔넛다 영찬은

악

소리를치고 가삼에칼이 박킨채로 이러나라고한다 반월은 아모리마음을 대담

이가지고 이와갓치 하였지마는 전신은 사사나 무썰이듯하고 등골에서는 땀이 소샷다 그리고 밥을먹고 잇는차에 영찬이가 소리를치고 이러나려함을보고 뒤로 잡아질듯이 물너섰다 처음 반월이가 순희와 의론할때에 이와갓치 원수를잡다가 사불여의 한일이잇거든 갓치잇다가 후원을하여 달나고한일이잇서 순희도 칼을가지고 반월과갓치섰다 영찬이가 이러나려하며 반월이가 뒤로 물너섬을보고 대경질색하고 살갓치 이러나려하는 마가에게 다라드러갈로배를 썰넋다 영찬이는 고만 그대로쓰러지며 아모소리도 한마디못하고 절명을하였다 바월과 순희는 마가의죽은 방문을 단々이닫치고 해주집 잇는방으로건너왔다 이때 해주집은 반월이와 순희가 영찬에게가서 엇더케 원수를잡나하고 자연접이나서 전신을 썰고안졌다가 반월과 순희가 건너움을보고 썰이는 음성으로

엇더케 되었는나

하고 무뎠다 반월은 래연한안색으로

저는 원수를 잡고왔습니다 마가놈은 지금죽었습니다

이소리를듯는 해주집은 아니놀날수업다 그리하야 와마디소리로

정말이나

그러면 정말이지 거짓말을 하겠습닛가 마가의방에 가서보십쇼

해주집은 그래도 고지들이지아니하야 썰이는다리로 억지로이러서 마가의죽어잡바진방을 들러다보고는

아! 인제는 내가죽어도 한이업다 나는 더러운년이다 반월아 나는죽음이로써 내게 사죄를한다 죽은어미라도 용서하여라 오날까지 모진목숨을부지하기는 오날이런 패사를 보려함이다 아々나는 죽어도 부정녀의 혼이되고마는구나 지하에간들 너의 아버지혼을 엇지본단말이나 혼이라도 나를더러운년이라고 타매를하겠구나

하더니 허리에서 단도를내여 목을썰은다 반월과 순희는 대경하야 급히다라드러갈을 빼았고자하나 예리한칼은 무정하게목에 숨통을썬넋다 반월은 해주집을붓들고 홍곡코자한다 순희는 반월을흔들며 귀에다 입을대고 무엇이라고하더니 우를을뺏치고

형님! 자 그러면 이뒤일을 엇지하면 무사하겠소

뒤일은 녀며마러라 내가 아버지께 의론을함아

하고 순희는 부친에게갓다 이때 경렬도 술이만취가 되어잔다 순희는 경렬을흔들어세었다 경렬은 눈을떠보며

순희이나 왜 세우는나

아버지큰일 났습니다 이일을 잘조처하여 주세요

경렬은 삼썩놀나 벌떡이러안지며  
응— 큰일이라니 무슨큰일이냐  
하고 상거도 술이 덜매인눈을 떠서 순회를본다 순회는 음성을낮추어 반월이  
와 저와 합력하야 마영찬 죽인말과 해주집이 뒤를이어 자살한말을한였다 경  
렬은 이말을듯고 새정신이 번쩍나서

아! 그러면 큰일났구나 이일을 엿지한단말이나

아버님! 그리걱정하실것 업습니다 마가의 취하로잇는놈이 중국인뿐아니  
라 조선인도 만나잇지요 그런즉 여차— 하시면 일이 무사할것이올시다

하고 계교를 가랏쳤다 경렬은 순회의 계교의말을듯고

올라그리하면 되기는하겠다마는 나는 원일씨를 볼것이업구나 원일씨는 내  
가 마가와 공모하고 자괴를 저와갓치한줄아는데

그러기에 아버님이 제가말삼한대로하시고 사과의말한마디만 하시면 원일  
씨도 전혈이 푸러질것이올시다

과연 그리하였스면 원일씨도 용서하겠다

하고 곳 자괴의 심복몇사람을 불러서 조선인외에 중국인이 가진 총과칼을 술  
이취하여 자는틈에 모다거두었다 그리고 잇흔날 자괴의 심복 조선인만 총과  
칼을 가지게하고 중국인들 모다불냈다 중국인은 부르는소리들듯고 총과 칼

을차렸다 그러나 벌서거두어잔것이 잇슬리만무하다 마적놈들은 눈이 둥그래  
저 마가의집으로 모여드렸다 그러니 중국인마적들은 적수공원이요 조선인은  
병괴를 다가지고있다 그리하야 중국인은 엿진영문을모르고 눈이멀거니 동정  
만보고있다 경렬은 반월이가 저의부친에 원수잡기위하야 마영찬 죽인말이며  
해주집이마저 자살한말을하고

자— 마가는 이와갓치 되었스니 우리는 자유로 생활할수가잇게되었다 우  
리는 마가에게속박당하기는 채무사설기아니냐 그런즉 우리는 우리대로각  
각 자유로살길을 찾자 우리가 이마가장을 소탕하여버리고 하여자는 동시에  
그냥 처여질수는업다 마영찬의 재산을 전부공평하게 나누어가자고 하여지  
자 너의들 의향이엇더한나

하고 소리를 높혀말을하였다 이마적들은 사실 중국인이나 조선인이나 마영  
찬의 빚을지고 감지못하야 복종을하고잇는터이다 그러니 항상불평을 품고잇  
다가 경렬의말을듯고 일제히 손을들고 이구동성으로

죽소리경렬씨 말대로합시다

하고 찬성을한다 중국인 마적중에 마영찬의 심복으로잇는 자는 마음에 불평  
을가지고 항거코자하나 수중에 병괴를 빼앗겼스니 조금도 항거할능력이업슬  
뿐외라 금전이라면 하날갓치 숭배하고 생명보다 더중하게아는자로 마가의돈

을 평균분배하여가지고 하여지자는대야 마음에 얼마나 조았스랴 그리하여  
 악모공파업시 마역찬에 재산을 평균분배하여가지고 각々 하여저갓다 경렬은  
 마적배를 헛쳐버리고 원일을보며 전사를 무시하사파하였다 원일은 이처지  
 를 당하야 무엇이라고 불쾌한말을 할수가업다 그리하여 원일은 전사는 아주  
 잇고 지내는것이 쏘타고 위안의말을하고 자괴의가족과 경렬의가족과 반월을  
 다리고 이왕집으로 내려오며 마가장을 불을질너 전부소화를하여버렸다 이때  
 창선은 순희와 반월이가 마가장에 드러가 었지나 담정을하고 오나하며 기다  
 리고잇다가 의외에 하로지내에 이갓치움을보고 만심환회하야 반가이마저 부  
 천세 그간고생한일을못고 또 었지하야 마가를 속기 죽인일을무렸다 순희는  
 경과사를 말하얏다 창선은 반월의 대답한것을 칭찬하기를 마저아니하였다  
 경렬은 창선을보며 자괴의 과거의 잘못을 말하고 사과하였다 창선은우수면서  
 제가 경렬씨의 심정을압나다 진정으로 그리하신것은 아니요 금전의감정으  
 로 하신것이지요 이후는 다시말을 마려주시고 더욱기 천절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미안심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창선과 순희는 결혼하기로 정하였다 아!  
 이후에 반월은 었지나 되엿는가 창선의 은혜를 입었스나 창선은 순희 애인  
 이 될것은 정한일이다 그원주 자괴의물은 원월이엿다 그의 하야 반월은

